

[특별기고] 북한의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와 남북농업협력 방향

[한국농어민신문]

UN 안보리 결의도 대북제재로 북한의 취약계층이 부정적인 인도적 영향을 받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남한의 인도적 지원은 북한 당국군이 아니라 배고픔에 시달리는 북한주민들에 대한 지원이라는 점이 중요하고 이에 대한 공감대 형성도 매우 중요하다.

| 김관호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박사



지난 7월 14일 UN 고위급정치포럼(HLPF : High Level Political Forum)에서 북한의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DGs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위한 자발적 국가평가보고가 열렸다. 북한 당국은 2030년 의제가 사회주의 강대국 건설을 위한 국가 발전 정책에 부합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2021 북한의 자발적 국가검토보고서는 정부의 정책과 노력, 과제 및 우선 순위 계획을 보여주는 첫 번째 보고서로서 UN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17개 목표, 95개 대상, 132개 지표를 설정했다. 북한은 자체 실정에 맞게 내용을 조정하여 '우리식 목표'를 재설정하였는데, 이는 북한의 사회주의체제에 벗어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중 2번째가 농업과 관련된 내용으로 북한은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식량 자급자족 실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북한은 곡물 생산을 증가시키기 위한 몇 가지 긍정적인 조치에도 불구하고, 700만 톤의 곡물 생산이라는 국가발전목표(MDG)가 달성되지 못했다고 보고했다. 2018년 곡물생산량은 약 495만톤으로 최근 10년간 가장 적었으며, 이런 원인은 자연재해와 복원력 약화, 농자재 부족, 기계화 수준이 낮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북한당국은 과학농업과 수확량 증대를 위한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지난 10년간 가장 높은 665만 톤을 생산했으나 최근 몇 년간 연속된 태풍과 홍수로 인한 자연재해로 2020년 생산량이 552만 톤으로 줄어들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8월 5일 북한의 함경남도 함흥시, 신흥군, 낙원군, 영광군에서 145-307mm의 강수량으로 농경지 수백정보가 매몰되거나 침수, 유실되고 주택 1,170여채가 매몰되었다고 조선중앙 TV가 보도했다. 이에 유엔인도주 의업무조정국(OCHA)대변인은 최근 가뭄에 이은 북한의 폭우피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북한내 식량안보 상황에 대한 우려를 가중시킨다고 말했다.

그리고 국내 전문가들은 북한의 수해지원은 정치상황과 무관하게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앞서 북한이 발표한 자발적 국가검토 보고서에서 스스로 내부의 문제를 외부에 공개한 것은 국제적으로 정상국가 이미지 개선과 대북제재 완화, 국제협력을 통해 식량문제를 해결하고 경제발전을 꾀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된다. UN의 지속가능발전 목표 1번인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을 위해 각 국가에서 목표를 세우고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제협력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

특히, 남과 북은 비록 70년간 정전상태에 있지만 같은 동포로서 북한 주민이 식량난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상황을 외면할 수 없다. 북한 주민은 언젠가 우리와 함께 걸어가야 할 동반자라는 점에서 인도적 지원은 결국 우리를 위한 지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긴급구호 지원의 성격은 북한 주민의 기본적인 생존권과 인권을 보장할 수 있다. UN 안보리 결의도 대북제재로 북한의 취약계층이 부정적인 인도적 영향을 받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남한의 인도적 지원은 북한 당국·군이 아니라 배고픔에 시달리는 북한주민들에 대한 지원이라는 점이 중요하고 이에 대한 공감대 형성도 매우 중요하다.

북한의 지속가능발전 목표는 농업생산성 증대를 통한 자급자족 달성과 영양개선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이런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4가지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기관은 농업성, 재정성, 국토환경보호성, 국가비상재해위원회, 농업과학원 등이 있다. 남북간 회담시 또는 농업개발협력시 관련된 기관과의 회의나 국제학술회의 개최를 통해 구체적인 수립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첫째, 북한이 국제사회에 처음으로 발표한 '자발적 국가검토보고서'는 북한의 현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익한 자료라 할 수 있다. 북한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17개의 목표를 제시했는데 이들 목표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북한이 제시한 지속가능 식량 생산과 연계된 SDGs 지표들은 빈곤 및 영양실조 종식, 신생아와 어린이 사망률 감소, 위생, 충분한 식량, 자연 재해 회복 등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가 북한과 SDGs를 협업할 때 포괄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진행해야 할 것이다. 특히, 북한은 코로나-19로 식량난과 보건의료가 매우 취약한 실정으로 긴급구호 성격의 식량지원과 코로나 백신 등 인도적 지원을 해야 한다.

둘째, 남북농업협력의 필요성은 우선적으로 북한의 농업생산성을 향상시켜 북한 주민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는 곧 북한주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지키는 것이기도 하다. 남북관계 차원에서는 비정치분야인 농업협력으로 남북관계의 신뢰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남북 민생협력 및 호혜적 경험을 이루어야 한다.

셋째, 올해 초 열린 제8차 당 대회에서 김정은 총비서가 '인민위천'을 강조한 만큼 남한의 순수한 인도적 지원을 외면하지 말고 심각한 식량난과 보건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